

## 모운숙의 시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의식

송영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성시인인 모운숙의 시에서 전쟁을 소재로 한 시를 중심으로 식민지시대와 가부장 제도하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운숙의 여성의식이 식민지시대에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시적 화자의 담론에서 남성화자를 통한 여성적 언어의 주체성을 고찰하고 전쟁을 소재로 한 시에서 모성의 이중성을 살펴 보았다.

모운숙의 여성의식은 식민지와 가부장제도에 저항하는 여성해방의식에서 출발한다. 신여성이었던 그는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일찍이 사회일선에 참여하는 여성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는 여성적 글쓰기로 남성화자를 선택하여 기존의 언어체계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주체성을 시도하였고, 전쟁을 소재로 한 시에서 어머니의 이중적 이미지를 드러내었다. 그의 모성성은 식민지시대에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아내의 이미지에서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때에는 참전을 독려하는 어머니로 이중적 이미지를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모운숙은 시적화자의 담론 구조를 통해 여성적 언어의 주체성을 나타냈다면 전쟁시에서는 역사적 변천과 함께 혼돈된 여성의식의 여정을 드러내었다. 결국 모운숙의 여성의식에서 한국적인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결합된 불완전한 여성의식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핵심어 : 모운숙, 남성화자, 전쟁문학, 전쟁시, 친일시, 여성적 언어, 어머니의 이중성

## 1. 서론

한국문학에 있어 본격적인 전쟁문학은 근대문학이후 한국전쟁의 체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한국전쟁 당시 종군작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쟁문학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전쟁의 비극성과 참상을 그린 작품이 대부분이다. 당시 전쟁문학을 “사병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문학행위”<sup>1)</sup>, “전쟁의 파괴양상과 충격의 경험을 체감적으로 제시한 문학”<sup>2)</sup>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또는 “사회주의 사상 문제를 문학의 소재로 취급하지 못하고 이념으로부터의 도피시대를 맞아 현대문학에서 잃어버린 문학의 시대”<sup>3)</sup>, “전쟁 체험의 현장에서 쓰여진 시들은 직설적인 상황 묘사와 인위적인 절규 및 감탄사의 나열로 채워진 것이 대부분이었기에”<sup>4)</sup> 예술적 표현력을 얻을 수 없었던 부정적인 평가와 “해방 후 일본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서구적 문학 양식의 유입으로 새로운 기법에 충돌함으로써 한국시의 자생적 웅전력을 길러주는 계기”<sup>5)</sup>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왔다. 이처럼 전쟁문학에 대한 평가는 문학의 예술성 부족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전쟁문학은 해방 후 한국문단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시작되어 분단된 현재에 이로서는 통일의 과제와 민족공동체라는 문제점을 기지고 끊임없이 문학의 소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현대문학에서 전쟁을 소재로 하는 시는 한국전쟁체험이며 주로 남성작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한국전쟁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시인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종군작가들의 생생한 체험이 문학에 반영되었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 이 시기에 전쟁을 소재로 한 여성시인으로는 모운숙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모운숙은 부산 피난시

1)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88. pp.255-257.

2)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p.83.

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p.100.

4) 김재홍, 「6·25와 한국의 현대시」,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p.121.

5) 김재홍, 위의 책, p.212.

절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문예》지를 계속 발행하여 문학의 한 지면을 넓히기도 했으며, 1951년 『풍랑』은 피난의 참상과 승전의식을 고취하는 애국시를 쓴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모운숙은 한국전쟁을 시의 소재로 삼기에 앞서 초기시에서부터 전쟁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다. 식민지 시대에는 독립운동과 연결하여 전쟁을 시의 소재로 삼았고, 대동아 전쟁 때에는 참전을 고무하는 시를 썼으며, 70년 대 이후에는 분단통일을 염원하는 서사시집에서 임진왜란과 삼국통일이라는 전쟁을 소재로 삼았다. 그런 점에서 모운숙은 초기시부터 마지막 서사시집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소재로 많은 시를 썼다고 할 수 있다.

모운숙은 1930년대 여성시인으로 민족혼을 노래한 조선의 시인이라는 찬사와, 센터멘탈리즘의 과잉과 시적 미숙성을 지녔다는 상반된 평가<sup>6)</sup>를 받으면서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그러한 평가는 그 후 친일에 동참하고 이승만 정권에 편승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인문주의 정신에 어긋난 부정적인 시인이라는 점과 한국전쟁 속에서 문학지를 발간하고 활발한 문단활동, 애국시를 쓴 시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있어 왔다. 격변기의 혼란한 정치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1970년대까지 대표적인 여성시인으로 활동해 온 그의 50여 년의 시창작의 여정은 곧 우리 근대사이며 한국여성의식 변천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운숙 시는 전쟁을 소재로 한 시의 변모과정을 통해 여성시인으로서 당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의 정신사적 변모와 함께 한국여성으로서의 여성의식을 살필 수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먼저 초기에 형성된 민족주의 사상이 형성되게 된 여성의식의 배경을 알아보고, 여성시에서 남성화자를 쓰게 된 배경과 그것이 전쟁시와 어떻게 연관

6) 양주동, 「1933년도 시단년평」, 신동아, 1933.12.

김상용, 「영운시집 독후감」, 동아일보, 1933.10.22

변영로, 「영운시집을 읽고」, 동아일보, 1933.11.8

김기림, 「모운숙의 『리리씨즘』 시집, 『벗나는 지역』을 읽고 上 下」, 조선일보, 1933.10.29, 10.31.

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민지시대의 여성시인이 당대의 담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그 변모과정을 고찰해 볼 수 있겠다.

## 2. 여성의식의 확립

모운숙은 전도사이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부친과 신앙이 독신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기독교 정신인 박애정신을 이어 받았고, 유년시절 부친으로부터 훈이 담긴 글을 써야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아버지처럼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도 해보았으면 했다고 회상한 점으로 미루어 일찍이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훗날 정열적인 호소력 있는 애국시를 쓰는 것과 연관되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과도 연결된다. 그에게 여성이라는 삶의 정체성을 찾게 된 사건은 무당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에게 자주 훈이 났지만 굶히는 장면을 몰래 보러 다니면서 무당이라는 역할에서 기존의 여성과는 다른 여성의 사회적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무당이란 여자는 한국 여자이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고 떳떳하고 당돌하면서 수줍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원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수십의 포로가 된 듯한 어머니의 표정이나 고모, 친척이라고 집으로 드나드는 아낙네들과는 너무도 딴 세상의 여성이었다.<sup>7)</sup>

무당은 순종적이고 폐쇄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점을 발견한 것은 그에게 최초로 여성해방의식이 싹트게 된 계기가 된다. 당시 '여자로 산다는 것도 이 나라에서는 반 병신 인간이 아니고는 여자답다는 소리를 못

7) 모운숙, 『회상의 창가에서』, 중앙출판공사, 1968, p.28.

들을 것만 같았고, 한국적인 인간이 되면서 세계 속에 사는 자연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한”<sup>8)</sup> 그의 꿈은 한국적인 여성이 아닌 세계적인 여성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유년의 체험은 한국여성의 순종적이고 폐쇄적인 여성상에서 보다 진취적인 여성상을 구축하려는 인간평등사상이 발현된 계기가 된다.

한편 모운숙의 삶에 영향을 준 여성인물은 인도의 여성시인 나이두<sup>9)</sup>였다. 나이두는 “영국제국 밑에서 신음하는 인도를 애통하게 그린 나이두 여사의 숭고한 민족적 정열과 그 정신적 투쟁을 더욱 흠모하고 존경”<sup>10)</sup>했을 만큼 닮고 싶은 인물이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저항하면서 시도 쓰고, 정치가였던 나이두의 삶은 모운숙이 담고자 했던 인물이었기에 그 후 그가 정치에 참여한 점이나 시를 썼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여성 의식은 당대에 독립운동가이며 대표적인 문필가였던 이광수를 만나면서 변모한다. 그것은 1933년 첫시집인 『빛나는 지역』 발간 후 받은 평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김기림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불유쾌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것과 양주동이 춘원의 과찬이 도리어 작자를 그칠 수 있다는 평가는 훗날 정태용이 “춘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더 모운숙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 것”<sup>11)</sup>이라고 한 아쉬운 평가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춘원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글은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8) 모운숙, 위의 책, p.125.

9) 나이두(Naidu, Sarojini, 1879~1949)는 벵골지방 브라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런던 대학과 캠브리지대학에서 수학하고 영어로 된 시집인 『The Golden Threshold』(1905), 『The Bird of Time』(1912), 『The Broken Wing』(1918) 등을 발표했다. 그는 인도의 열정적인 서정시인이자 인생시인 종교시인이었으며, 여성해방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반영(反英) 민족운동에서도 활약하였다. 봄베이시 의회 의원(1923 1929), 인도국민회의 최초 여성의장(1925)을 역임하였으며, 런던 원탁회의 인도대표(1931), 남아프리카 주재 인도 정부요원 대리로도 활약하였다(1932).

10) 모운숙, 『포도원』, 청구문화사, 1960, p.157.

11) 정태용, 「모운숙론」 『현대문학』 1967. 5, p.78.

人類라든지 社會을 向上하게 할 作品을 써야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먼저 作家의 教養程度가 높아야 하지 않아요. 作家의 性格이 善化하고 美化하기 전에야 어찌 大衆의 良心을 움직일 作品이 나올 수 있을까요.<sup>12)</sup>

모운숙이 '대중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을 써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새로운 시형의 모색이나 1930년 순수시와 모더니즘과는 무관한 효용론에 치우친 시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춘원이 말한 '민중의 정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문사가 되어야 하고',<sup>13)</sup> '시인은 민중의 선생이요 지도자여야 한다'<sup>14)</sup>는 문사의 길에 따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춘원의 문학관을 그대로 따라서 작가는 민족의 지도자나 사도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문학관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문학자로서의 예술론인 표현론을 중시하지 않고 효용론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운숙의 순수한 조국애의 발현인 민족주의는 춘원과의 만남으로 계몽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 초기에 지닌 여성해방 의식은 계몽주의로 치우치게 된다. 그의 여성해방의식을 담은 초기의 시편 중에 춘원을 만나기 이전에 쓴 아래와 같은 시는 어느 정도 신여성으로서의 여성해방의식을 살필 수 있다.

돌을 들어 그 꿈을 깨치고  
저주받은 지난 날을 기억에서 빼시와  
아버지 오빠 그들에서 떠나서요  
밝혀진 진주를 모조리 집어서  
끓는 풀무에 다시 넣으세요

- 「그 꿈을 깨치소서」 전문

12) 홍명희·모운숙 兩氏 問答錄, 『李朝文學』 기타, 『삼천리문학』 제1집, 1938.1

13) 이광수, 『文學者 文士의 修學』, 『이광수 전집』 16권, 삼중당, 1964, p.56.

14) 이광수, 『中庸과 徹底』, 위의 전집, p.147.

위의 시는 1932년에 쓴 기록<sup>15)</sup>으로 보아 첫시집을 낸 다음, 주목받기 이전의 시로 여성해방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아버지 오빠의 그늘'을 벗어나 과거의 여성과는 다른 여성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강한 저항이 담긴 여성주체성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날의 꿈 속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당당한 여성의식이다. 이러한 시는 「검은 머리 풀어」, 「조선의 딸」, 「이 생명을」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시들은 식민지 민족의 저항성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희생정신을 정열적인 어조로 드러내어 초기 여성해방의식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임계신 곳 향하여  
 이 몸이 갑니다.  
 검은 머리 풀어 허리에 매고  
 불 꺼진 조선의 제단에  
 햇불 켜 놓으려 달려갑니다.

-「검은 머리 풀어」전문

이 시는 1931년에 간도에서 쓴 시로 5행 단시이지만 간결하면서 정열적인 여성의 희생이미지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조선의 제단에 햇불을 켜겠다'는 여성의 저항의지는 잔다르크적인 면을 지닌 성처녀의 희생정신으로 드러낸다. 위의 작품이 『동광』지에 발표되어, 춘원이 모운숙을 직접 만나서 극찬한 시이다.<sup>16)</sup> 당시는 여성시인이 많지 않았던 시기였고, 시의 경향도 조국애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기에 춘원에게는 독특한 시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후 춘원과의 친분으로 시의 경향은 여성의식이 보다 깊어지기 보다는 인도주의, 계몽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 치우쳐 현실에 대한 저항보다 인격의 완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 즉 식민지 현실에

15) 첫시집에 수록된 시는 105편인데 대부분의 시의 말미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 이광수를 만나기 이전에 쓴 '간도시편'과 그 후의 시를 비교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16) 모운숙, 『희상의 창가에서』, 중앙출판공사, 1968, p.184.

대한 인식과 여성해방에 따른 저항보다는 민중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계몽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의 초기시인 간도 시편과 춘원을 만나고 난 후의 시를 비교해도 시형의 길이나 내용 등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sup>17)</sup> 시의 출발에서 보인 간도시편의 시와 국내로 돌아와 쓴 시의 경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간도 이주민의 실상을 신랄하게 포착하면서 시의 압축성과 비참한 이주민들의 일상을 그리던 그의 시는 점차 계몽성을 띤 설교조로 변모되는데 이는 춘원의 계몽주의 사상이 그대로 모운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성의식을 지닌 사회의 첫출발은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간도의 삶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곳은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가르칠 수 있어서 선택했다는 간도 용정에서의 교사생활은 사회적 삶의 시작이면서 구체적 인 직업을 가지고 시작한 삶이 된다. 그곳에서 그는 간도 이주민들의 삶과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의 활동을 보면서 조국의 현실을 깨닫고「검은 머리 풀어」<sup>18)</sup>, 「피로 새긴 당신의 얼굴을」 등의 시를 쓰면서 식민지에 처해 있는 조국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다. 그곳의 생활은 2년을 넘지 못했지만 민족애와 조국애를 그린 초기시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그의 시에 등장하는 여성상은 조국애와 연결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그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초기시에서 성치녀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했다면 후기시에서는 과거 속의 인물을 재현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일과 연관된 여성인물로 조선시대의 여성 '논개', 신라시대의 '선덕여왕'을 현

17) 초기시에는 길이의 면에서 주로 1연 4-5행, 2연 4행시가 많아 시의 호흡이 길지 않은 것이 특징이나 그 이후의 시들은 계몽적인 성격을 띠면서 호흡이 길어진다. 훗날『렌의 애가』와 서사시집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91행의 시「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줄고, 앞의 책, p.102. 참조).

18) 1931년에 『동광』지에 시「검은 머리 풀어」를 시인의 등단작이라고 하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단지 첫시집에는 검열로 수록되지 못했고, 이 시의 발표로 이광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지면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정확한 지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같은 해에 11월에 발표된『피로 새긴 당신의 얼굴』을 등단작이라고 할 수 있다(줄고, 『모운숙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7, p.12).



대적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여성상을 만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여성영웅으로 우리 역사에 남는 인물로서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기존의 영웅은 모두 남성으로 그려지던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여성의 영웅성을 현재화했다는 것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식은 유년시절의 체험을 통해서 여성의식이 받아들여지고, 여성으로서 개인적인 자신의 경험이 근거가 되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개인적인 비애나 허무감보다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담론에서 공감을 받으려 했던 흔적이 더 많다.

### 3. 남성화자를 통한 여성적 언어의 주체

여성적 글쓰기에서 성의 주체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대답은 가능하지 않다. 기존의 언어체계가 남성의 언어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여성의 주체적 언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문화적으로 고정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개념으로부터 여성과 남성을 해방해서 생물학적인 성과 관계없이 자기에 맞는 성질을 탐색할 기회를 주거나 둘 중에 이상적인 성을 골라 선택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sup>19)</sup> 시에서 시적 화자를 남성으로 설정한 것은 여성다움에 대한 해체의 한 방법임과 동시에 가부장 제도에 대한 전복의 방법으로 남성성을 획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스피박은 양성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욕망을 논의하는 태도를 더 바람직하다<sup>20)</sup>고 할 때 남성화자의 빈번한 등장은 모운숙이 애상적인 여성성을 해체하려는 의도록 파악된다. 이것은 여성성의 전형을 벗어나 남성화자인 타자를 동일화시키려는 여성적 언어를 획득하려는 시도

19) 이수연, 『메두사의 웃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50.

20)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p.77.

이다. 쇼월터는 여성문학은 남성이 지배하는 문학전통과 규범에 복종하는 표면적이고 의식적인 측면과, 그 이면에 잠재되어 겉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표면의 의미를 뒤집으려는 강력한 무의식의 저류들을 동시에 구현하는 이중성에서 구할 수 있다<sup>21)</sup>고 하였다. 이리가레 또한 가부장제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는 남성적인 무의식, 남성적인 상상적인 것, 그리고 남성적인 성 등을 체계화할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sup>22)</sup>고 한 것에서 모운숙의 시에 등장하는 남성화자는 바로 의미를 뒤집으려는 주체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글쓰기 대안으로 여성적 차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여성적 글쓰기는 전복적일 수밖에 없다<sup>23)</sup>고 식수스가 지적한 것처럼 모운숙이 사용하고 있는 남성화자의 등장은 기존에 대한 전복으로 여성성을 부정한 글쓰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남성성이 기존 여성적 글쓰기를 벗어나 '전쟁'을 소재로 하여 남성의 목소리를 갖는 것은 또다른 의미의 여성의 목소리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운숙 시에 많이 드러난 시의 화자로 수도사, 신, 남편, 군인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에 의해 서술되는 언어를 부여하여 동일성을 회복하려는 시적과정이지만 역시 억압된 충동이 텍스트에 포함된 관념화된 남성, 관념화된 아버지의 목소리와 동일시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남편, 수도사, 신의 목소리로 드리닌다.

아내여 설움을 참고 칼을 채우라  
 어서 이 칼에 입을 맞추고  
 내 몸에 튼튼한 갑옷을 입히라  
 대결 없는 사나이는 비겁한 인간이나라.

- 「이별」에서

21) 태혜숙의 앞의 책 p.21.

22) 이정호, 『페미니즘과 영미문학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237.

23) 이정호, 앞의 책 p.5.

나는 거룩한 사나이가 아니라고  
성소의 십자가는 깨어 말하지 않느냐  
소녀여! 성소 제단에 황혼이 피어오르고  
기도의 종이 운다. 너의 아픔이 무어나

-「수도사」에서

가시덤불 사이로  
날 부르는 인자한 음성 들었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

-「그 말씀 잊지 않고」에서

해진 치마 복 가난을 슬퍼할 때  
어디선가 그 얼굴은 가만히 나타나  
깨어진 창 틈으로 속삭입니다.  
"너는 조선의 딸이 아니냐"고

-「조선의 딸」에서

「이별」은 백제의 계백장군을 생각하고 쓴 것으로 장군의 목소리가 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떠나는 독립군을 은유하여 쓴 것으로 남성 화자는 비겁한 인간이 될 수 없고,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없으며, 조국을 위하여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존재이다. 남성을 보내는 아내는 남성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이별을 아쉬워하는 여성으로 드러난다. 비장한 각오로 떠나는 남편과는 달리 아내의 모습은 대비적으로 눈물짓고 있다. 전쟁터를 향한 발걸음은 '조국의 빛난 언덕에 내 혼을 두고 간다'의 구절에서 시의 화자가 남편의 목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가부장에 대한 권위의 상징인 충을 위한 발걸음이 된다. 이에 반하여 여성은 이별의 눈물만 흘리고, 홀로 두기 어려운 정들인 비둘기로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전

락한다. 이것은 남성의 화자 또한 시인의 목소리로 자신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지만 타자화된 여성의 목소리는 나약한 모습으로 드러나 여성주체의 혼돈을 가져온다. 여성의 전형성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다시 여성의 전형성을 드러내어 남성화된 여성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언술구조를 남성화자로 치환함으로써 해서 여성적인 것을 해부하지만 여성의 거세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중적 언술구조를 이룬다.

이중적 언술구조는 남성예찬, 곧 영웅에 대한 찬가로 가부장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없다. 국가에 대한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근대적인 이데올로기인 충이며, 그 충의 담론을 형성하게 하는 조국에는 식민지에 저항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삼은 가부장제의 목소리가 된다. 「수도사」, 「그 말씀 잊지 않고」, 「조선의 딸」에서도 각각 성직자, 신, 아버지의 목소리로 엄숙한 분위기를 지닌다. 특히 「조선의 딸」에서는 아버지 외에도 신의 음성으로도 들린다. 이처럼 첫시집에는 남성의 목소리는 신에 가늠되는 인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경향의 시는 대동아 전쟁을 고무한 「어머니의 힘」, 「내 어머니 한 말씀에」 등에서는 출전을 앞둔 아들의 목소리로 등장한다. 이후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에서 유언을 남기는 죽은 군인의 목소리로 비장미를 드러내는 시적 효과를 갖는 남성화자도 있다.

이처럼 식민지 시대와 가부장제의 이중억압에 의해 발화되는 남성의 목소리는 여성 주체의 이중타자화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는 여성주체의 목소리를 찾지 못하고 봉건적인 한국남성을 질타하려는 의도는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남근 중심의 언어체계가 억압해 온 여성성을 드러내려면 새로운 글쓰기를 실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적 글쓰기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주체가 쓰는 글에 한정되지 않고 남근 중심인 기존 언어체계 속에서 그동안 제대로 상징화되지 못한 여성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글쓰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sup>24)</sup>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서 타자화된 주체는 스스로를 대변할 언어를 갖지 못한다고

24) 태혜숙, 앞의 책 p.25.

보기 때문이다.

모운숙의 이데아적인 욕망의 반영은 남성화자를 통해 드러나고, 이는 라캉이 말한 '주체의 불완전성'<sup>25)</sup>으로 보인다. 이는 식민지의 현실과 분단이라는 한국적인 역사의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분리될 수 없는 지점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시적 언어를 통해 남성 계몽주의자들의 목소리와 차별없이, 시에서 이념과 논리를 설파해나간 것은 식민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언어가 부재하는 상황을 대변한다. 따라서 모운숙의 후기시집에 다양한 화자를 등장시키는 서사시집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 4. 전쟁시와 어머니의 이중성

모운숙의 시에서 전쟁을 소재로 한 시는 1931년에 발표한 독립투사를 소재로 한 「피로 새긴 당신의 얼굴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후 삼국시대의 싸움터를 생각하면서 쓴 「이별」, 「기다림」, 「아내의 소원」 등에서 아내 상으로 그려진다면, 해군 기념일을 맞아 아들에게 보낸 시「아가야 너는」, 출전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시「어린 날개」, 해군특별공격대의 어머니에게 바치는「어머니의 힘」, 「내 어머니의 한 말씀에」 등의 친일시와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어머니의 기도」 등의 애국시가 있다. 식민지 시대에서는 아내로서 남편을 싸움터로 나가는 경우였다면 대동아 전쟁 시대에서는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로 변모된다.

날아라 맑은 하늘 사이로  
 역센 가슴 힘껏 내밀어  
 산에 들에 네 날개 짝 펼쳐라.

25) 이수연, 앞의 책, p.58.

꽃은 웃으리, 잎은 춤추리.

아름드리 희망에 팔을 벌리고  
큰 뜻 큰 싸움에 네 혼을 타올라  
바다로 광야로 나는 곳마다  
승리의 태양이 너를 맞으리.

고운 피에 고운 뼈에  
한번 새겨진 나라의 언약  
아름다운 이김에 빛나리니  
적의 숨을 끊을 때까지  
사막이나 열대나  
숫아숫아 날아가라.

사나운 국경에도  
힘준한 산협에도  
네가 날아가는 곳엔  
꽃은 웃으리 잎은 춤추리라.

- 「어린 날개」전문

밀물 조용하고  
등대 쓰러진 후면  
먼 山 섬들엔 새벽이 피어 오른다  
잠자는 네 얼굴에  
새어드는 물빛이 水銀처럼 차다  
네 아버지는 고기잡이 어부  
네 형은 오랜 등대지기  
엄마는 바다냄새를 이전부터 업고

머리는 잔물에 부드러운 적 없이  
엄마는 바다에서 긴 새벽을 보냈다.  
미역 뜯어 광우리에 채고  
수궁에 깊이 깊이 잠겨  
오색 진주 한 아름 안아 보기도 했다.

.....

아가야! 조개잡기 즐겨 모래성을 쌓고  
땅에서 서기보다 물에 놀기 좋아 하는 너 바다가  
이제 너를 오랜다  
이제 너를 부른다  
해군모 쓰고 군복입고 나오란다.  
대동아를 매고갈가가란 힘찬사명이  
젊은 바다 한 가운데서 너를 부른다  
사나운 파도 불어  
네 원수를 들이쳐라

- 「아가가 너는」에서

밀물 조용하고  
동대 스며진 후면  
먼 섬 둘레엔 아침이 피어 오른다  
잠자는 네 얼굴에  
비쳐 오는 물빛이 수은처럼 맑다.

네 아버지는 오랜 동대지기  
네 형은 고기잡이 어부  
내 치마는 바다냄새를 잊어 본 적 없고  
머리는 잔 물에 부드러운 적 없이  
엄마는 바다에서 긴 세월을 보냈다.

.....

살같이 헤어 가는 뱃머리에는  
 오색 나라 해군이 왔다갔다 하더라  
 아가야! 너도 이제 해군모 쓰고 갈 날이 왔다  
 바람처럼 날세고 꽃잎처럼 깨끗한 몸이 되어 바다를 날아야 한다  
 바다를 점령해야 한다.

물에서 놀기보다 바다에 들기 좋아하는 너  
 하룻 돌 해군모 쓰고 나가거라  
 바다의 아들, 조선의 아들로.

- 「등대지기 아가」에서

「어린 날개」(1943)와 「아가야 너는」(1943)은 대동아 전쟁 참전을 독려한 시이고, 「등대지기 아가」는 시집 『옥비녀』(1947)에 수록된 작품이다. 위의 작품들은 조국을 위해서 싸움터에 나가는 아들의 승전을 빌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어린 날개」에서 사막이나 국경을 넘어 날아가 싸우라는 공군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비행기를 타는 어린 아들은 억센 가슴을 힘껏 내밀어 산, 들, 비디, 팡야로 가는 곳마다 승리외 태양을 맞아 '고운피, 고운 뼈에 새긴 나라의 언약'을 지켜서 날아가는 곳마다 꽃과 잎은 춤출 것이라고 하여 꽃잎이 된다. 이는 한국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와는 다르다. '사나운 국경, 험준한 산협, 날아가는 곳'에서 '꽃'이 웃고 '잎'이 춤출 것이라는 것에서 이미 죽음을 축복하고 있다. 이는 다시 '고운 피', '고운 뼈', '적의 숨을 끊을 때까지 날아가야' 하는 특공대 가미카제를 연상시킨 진혼곡을 암시한다.

특히 위의 시「아가야 너는」은 해방이후 시집에 수록된 「등대지기 아가」(1946)<sup>26)</sup>와 거의 비슷하다. 시의 뒷부분 몇 행을 삭제하거나 '대동아'를

26) 모윤숙은 시집에 수록하면서 이 시를 쓴 연대를 1946년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 창작된 시라고 볼 수 없다. 시집에 수록하면서 개작한 연도를 써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등으로 바꾸어 재수록한 것이다. 모운숙은 『옥비녀』에 수록하면서 대부분의 친일시는 수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가야 너는」을 일부 개작하여 「등대지기 아가」로 수록하고 있다. 「등대지기 아가」만을 보면 ‘오색나라’, ‘조선의 아들’ 등의 시어를 등장시켜서 해방 이후의 분단으로 어수선한 국내현실을 그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친일시로 썼던 「아가야 너는」과 비교하면 같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일시에서는 학도병 징병을 고무한 시였지만 명칭만 바꾸어 해방 이후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시로 만들어 친일시를 애국시로 변모시킨 것이다. 친일시를 애국시로 변모시켜 놓은 것은 모운숙의 시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언제나 당대의 지배담론에 충실한 국가주의였으며, 의식 없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식민시대에서의 조국애와 민족주의의 주체성마저 변별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다.

당시 친일 지식인 여성들은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내선일체 부인 좌담회(1939.9), 징병징용제의 취지를 선전하는 부인결기를 촉구하는 강연(1941.9),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에서 실행한 결전부인대회(1941.12)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선 여성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미혼 여성들의 군위안부 동원에 적극 참여하여 황민화 정책에 동의한다. 모운숙은 시국강연과 신문, 잡지를 통해 친일시를 발표하면서 당대의 담론에 협력한다.<sup>27)</sup>

27) 『삼천리』, 1941.1 시, 「지원병들에게」  
 『매일신보』, 1942.2.21, 시, 「호산나 昭南島(소남도)」  
 \_\_\_\_\_, 1942.1.6. 수필, 「東窓(동창)」  
 \_\_\_\_\_, 1942.3.9, 시, 「어머니의 힘」 - 해군특별공격대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시편  
 \_\_\_\_\_, 1943.5.27, 시 「아가야, 너는」 - 해군기념일을 맞이하여  
 \_\_\_\_\_, 1943.11.12, 시, 「내 어머니 한 말씀에」  
 \_\_\_\_\_, 1945.1.3, 시 「신년송」  
 『대동아』, 1942.5. 연설문, 「여성도 전사다」  
 『신시대(新時代)』, 1943.12, 시 「오시지 않았는데」  
 \_\_\_\_\_, 43.12, 시, 「어린 날개」  
 \_\_\_\_\_, 42.1. 시, 「동방의 여인들」

해군 기념일을 맞이하거나 출전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시 「어머니의 힘」, 「어린 날개」 「아가야 너는」에서는 화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고, 아들을 출전 시킨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시 「내 어머니의 한 말씀에」에는 아들의 목소리로 비장한 각오가 들어 있고, 여성들의 전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젊은 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산나 昭南島(소남도)」, 「동방의 여인들」의 시에서는 호소력있는 목소리로 여성들을 동원한다. 또한 수필이나 연설을 통해서 아들을 전쟁으로 보내는 것이 모성이라는 것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대동아건설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문화의 향락성까지 비판하면서 여성의 노동력과 내핍생활을 강조하였다. 모운숙은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이 같은 동양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향락문화에 빠져 있다는 비판과 함께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위해서 가문의 며느리가 아닌 나라의 며느리가 되자는 연설을<sup>28)</sup> 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동양여성의 정신개조를 담은 시를 발표한다.

새날이라서

상 차려 즐기지 않겠습니다.

입던 옷 그대로

먹던 밥 그대로

28) “이번에 영 미국의 죄상을 듣고 알고 보니까 참으로 황인종으로서는 견디지 못할 괴씸하고 분한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정체에 같이 춤추는 여자가 한 분 동양에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저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입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된 셈인지 동양 여성이면서 미국 발바닥을 활아야 행복감을 느끼는 변태 여성입니다. 미국의 온갖 향락성, 개인주의 관념에 잔뜩 물이 먹은 이 여자는 그 생활이 말 못하게 향락적입니다. 송미령의 양말 한 켤레 값이 70원이라면 여부분께서는 놀라시겠지요? 미국에 왔다갔다 하면서 온갖 망녕된 사상을 추려서는 남편인 장개석의 머리에 붙여넣어 줍니다. 미련한 장개석은 송미령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진퇴유곡에서 장기의 신음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이 동양 있어 사태를 어지른다는 것은 같은 동양 여성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슴에 대화혼의 무형한 충검을 가져야겠습니다. .... 가문에서 쫓겨나더라도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 며느리가 됩시다.”(모운숙, 「여성도 전사다」, 1941년 12월 27일 부민관에서 개최된 ‘결전부인대회’의 강연 중에서)

달가워 새아침을 맞이하렵니다.

(……)

비단치마 모르고

연지분도 다아 버린 채

동아의 새 언덕을 쌓으리라.

(……)

우리는 새날의 딸

동방의 여인입니다.

-「동방의 여인들」전문

새해가 되어도 상을 차리거나 새옷을 입지 않고, 비단치마, 연지분도 바르지 않고 내핍생활을 하는 동방의 여인이 되자는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고 있다.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자식을 낳아 국가에 바치고 근검절약하는 내핍생활과 함께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책이었다. 일제는 그 정책에 부응하는 일을 여성지식인을 동원하여 실시한 것이다. 천황제 파시즘하에서 여성은 가(家)제도에 기반하여 '군국의 모', '건아(健兒)의 모' 등 많은 자식을 낳아서 국가에 바치는 모성을 강요당했다.<sup>29)</sup> 전쟁에 동원되어 학도병 징용에 협력해야하는 당시의 어머니들의 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군국주의는 친일 지식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단체를 통해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sup>30)</sup>고 할 만큼 여성들에게도 전쟁의식을 고취시켰다.

29)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편,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p.360.

30) 김활란, 「징병제와 반도여성의 각오」,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귀한 아들을 즐겁게 전장으로 내보내는 내지의 어머니들을 몰그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신시대, 1942.12)

친일시 이후 전쟁을 소재로 한 시는 해방이후에도 계속된다. 한국전쟁을 체험하고 쓴 시와 월남전선을 다녀와서 쓴 전쟁과 관련된 시가 있다. 1951년 잠시 남북이 합쳤을 때에 쓴 시라고 밝히고 쓴 「기다리던 그날」에서 ‘아시아의 힘이 되어 세계의 힘이 되어/평화의 앞잡이로 발길을 내세우자/형제여! 네 몸 네 몸 다 붙여 일으켜/거룩한 조국 위에 목숨을 숙이자/우리는 영원히 한 줄기/ 한데 뭉쳐 아시아의 기둥이 될/ 승리의 꽃뿔기 배달족이로다’라고 하여 조국의 승리를 고취하는 시가 있으며, 피난길에서 국군의 주검을 보고 죽은 군인을 시적 화자로 삼아 유언 형식으로 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1951)가 있고, 적의 땅에서 피흘리고 있는 아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1951)가 있다. 그 외에도 부산 피난길에서 상이군인 혼인식을 소재로 한 「당신의 신부」(1951)가 있으며, 월남전선에 있는 우리 국군을 위문한 체험을 쓴 「또다른 전선에서 국군을 본다」(1966)가 있다. 이 시에서 ‘장하여라 그 열 그 정신/굽힘 없는 이순신의 저항이다/가도가도 깊어지는 밀림 수령에/몰아 오는 적의 고향을 따라/아시아의 열풍에 몸을 떨면서/죽음도 마다 않고 달리는 국군을 본다/그 내뿜는 정의의 분노를 본다’고 하여 월남전의 군인을 정의를 싸우는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월남전의 의미를 ‘정의’라고 한 것은 모운숙은 1960년대 월남전에 대한 철저한 자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을 이순신의 저항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도 아니고, 국가주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동아전쟁과 한국전쟁, 그후 분단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소재로 삼고 있는 전쟁시를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끊임없이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탈식민지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복잡하게 결합할 수밖에 없는<sup>31)</sup> 주체의 혼란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운숙은 여성이 억압받던 시대에 살았던 시인이었기에 때문에 근대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과 여성해방의식에 대한 철저한 자각은 미처 완성되지

31)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2003, p.39.

못했다. 초기시에도 보인 저항적인 성취녀의 이미지와 적극적인 저항의지를 보여 탈식민지와 가부장제도에 대한 여성의식을 보이긴 했지만 그 이후로 더 발전하지 못했다. 초기시 「검은 머리 풀어」 「조선의 딸」, 「이 생명을」 등에서 보여준 희생적 이미지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지를 드러내었으나 태평양 전쟁 시에는 당시의 지배담론을 따라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부정적인 의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담론인 징병제, 여성의 노동력과 모성을 동원하는 데 일조를 한 친일시와 친일의 행동은 지식인답지 못한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대한 인식없이 전쟁이 있는 곳마다 자애로운 어머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주체성 없는 민족주의였으며 부정적 모성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방 후의 전쟁시는 남북한의 민족공동체라는 시각을 갖지 못한 채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식의 결여로 드러났다.

## 5. 결론

모운숙은 식민지 시대의 시인으로 사회 활동가로 활동한 신여성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사회적 삶을 실현했다. 유년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처럼 연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무당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삶을 꿈꿨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현모양처인 여성의 삶을 살기보다 남성들과 함께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한 삶의 여정을 보낸 여성이었다. 개화기의 신여성으로 몇 안되는 여성시인이었고, 결혼실패로 잡지사, 방송국 등을 다닌 직장 여성이었으며, 남성의 주 무대인 정치의 일선에서 외교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삶을 통해 그의 시세계는 여성적인 개인의 애상성보다는 남성적인 정열로 조국애를 노래한 특징이 있다. 특히 여성시인임에도 시의 화자를 남성화자로 쓴 점이나 독립운동, 대동아 전쟁, 한국전쟁 등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전쟁을 소재로 한 점은 한국시사에 특이한 점으로 남는다.

전쟁이 소재가 된 것은 남성의 삶을 동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한국적인 남성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던 것과 성차별을 벗어난 인간평등의 의미를 지닌 전략적인 방편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을 위해 싸움터로 나가는 것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모운숙은 시적화자를 통해서 남성의 목소리로 싸움터에 나가 조국에 대한 충을 실현한다. 그래서 전쟁터로 떠나는 장군의 엄숙한 목소리가 재현된다. 그래서 시 속에 등장하는 남성화자는 거의 전쟁과 관련이 있는 화자로 선택된다. 시「이별」에서 싸움터로 나가면서 아내에게 들려주는 남편의 목소리, 「내 어머니 한 말씀에」, 「어머니의 힘」 등에서는 징병으로 끌려가면서도 어머니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아들의 목소리,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에서는 죽은 군인의 목소리로 시적 화자로 삼는다. 즉 '남편', '아들'로 이어지는 남성화자에 대비되어 전쟁과 관련된 여성화자는 '아내'에서, '어머니'로 짝을 이룬다. 이들은 각각 독립운동,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과 연결되는 시대성을 가진다. 이렇게 남성화자, 여성화자를 통해 전쟁에 참여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부응하는 친일시는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여성의 이중적 목소리로 드러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충돌하게 된다. 이중적 언어로 새로운 전복을 꾀하면서 그 체제에 함몰하여 모운숙의 민족주의는 정체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모운숙은 전쟁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애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지배이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피지배층의 여성에 대한 관심이나 바람직한 조선 여성들의 투쟁에까지 이른 적극적인 여성해방의식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다. 모운숙 시의 여정은 곧 전쟁을 소재로 한 시의 역사이며, 곧 민족주의가 국가주의와 연관된 한국의 페미니즘의 현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식민지 시대의 모운숙은 민족주의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이다. 이를 통해 시적화자의 구조를 통해 불완전한 여성의 주체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근대사의 역사적 변모과정에서 '전쟁'이라는 소재를 통해 민족주의에 대한 혼란된 가치관의 여정을 볼 수 있었다. 모운숙의 혼란은 곧 민족과 국가의 이중적 개념

으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민족 공동체 의식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없이 식민주의의 연장에 놓이게 된 굴절된 민족주의가 된다. 결국 그의 여성 의식은 식민지 민족으로서의 민족주의와 한국적인 페미니즘의 결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에서는 보인 남성화자의 도입과 전쟁을 시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은 식민지 민족의 여성 글쓰기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필자 : 성신여대 강사

**Abstract**

War and Feminism in Mo, Yun-sook' poetry

Song, Young-soon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women's identity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t period as well as under the feudalistic social system by collecting the thematic role "war" in the female poet M's world. In order to review M's feminism, we have observed her background of feministic approaches to the Japanese imperialistic period, her feministic identity through the poetic narrator's discourse via male narrator's viewpoint and her dual "motherhood" among the poems which concerns the Wars.

M's feminism starts with the emancipation of women conflicting with the colonial situations and the feudalistic social system at that time. As a modern woman herself, M has established her identity engaged in the social issues after realizing Korea, the fatherland. She has tried to acquire the feministic identity by means of choosing a male narrator with a feministic literary style. And M has demonstrated the dual image of "mother" in her poems which concerns the Pacific War. Her "motherhood" represents a wife's image which wishes the independence of the fatherland during the imperialistic period. From then, M's "motherhood" changes her face as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in the battles during the Pacific War time and the Korean Civil War.

Along these lines, while M has shown the feministic identity



through the structure of the poetic narrator's discourse, she has also shown the passage of the confused feminism in the middle of historic vicissitude in her poems on Wars. In conclusion, we could find it incomplete the represented feministic identity in M's poems which is combined with Korean nationalism and feminism together.

**key word** : Mo yun-sook, Male narrator, War, poetry, Pro-Japanese poetry, Womanish wrighting, Mother's dualism

▶ 위 논문은 8월 30일 투고 완료, 9월 30일 심사 완료, 11월 15일 게재 확정